

타이어, 온실가스 배출감축 “압력”

EU, 구름저항 · 연료소모량 제한 추진 ... 자동차 연료 20% 관련

세계 각국이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나서면서 전세계 타이어업계가 새로운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12월11일 유럽연합(EU)이 조만간 타이어의 구름저항(Rolling Resistance) 및 연료 소모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미국 의회나 캘리포니아 정부도 유사 법안을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에 집중됐던 연료절감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7년 초 EU는 자동차업계의 실업 증가 및 차량구조 변경 비용 급증 등을 고려해 앞으로 5년간 유럽 신형 자동차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감축 목표를 25%에서 18%로 조정할 바 있다. 그리고 조정으로 발생한 차이를 메우기 위해 타이어의 연료 효율성 증대를 비롯한 각종 대안 마련에 나섰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의 20% 가량은 타이어와 연관돼 있어 타이어의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쉬운 방법으로 차량 타이어의 구름저항이 10% 감소하면 최대 75억7000만리터의 휘발유와 디젤 연료가 절감된다는 이론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타이어 업계관계자들은 타이어의 구름저항을 지나치게 줄이면 정지마찰이 약해져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독일의 Continental AG는 구름저항이 적은 타이어는 빗길 정지거리가 일반 타이어보다 길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구름저항 기준치를 제시하면 빨리 마모되는 타이어를 양산하고 쓰레기 증가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타이어업계는 타이어의 연료효율성에 등급을 매기고 소비자나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직접 타이어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해 현재 미국 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U는 미국과는 달리 교토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연료절감을 위한 법안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럽 및 일본의 타이어 생산기업들은 EU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구름저항 관련기준 외에도 제동 성능 관련기준을 정립하고 타이어의 에너지 효율 및 빗길 주행력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11>